

鷄產物價格 변동과 수급전망



許 信 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경제학박사)
수석연구원 · 농업경제학박사

배합사료 가격이 연속 올라 양계업을 불안 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 11월 초 대부분의 배합사료 제조공장이 배합사료 판매가격을 평균 20% 이상 올림으로써 금년 1월 이후 평균 70% 이상 오르게 되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은 배합사료제조 원료의 구입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한달사이에 일어났던 주요 원료가격의 변동을 살펴보면, 배합사료 가운데서 무려 6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옥수수 도입가격이 톤당 160달러에서 185달러로 16%가 상승하였고, 배합 사료에서 13%를 차지하는 대두박의 구입가격이 kg당 190원에서 230원으로 21% 상승하였으며, 배합사료에서 7%를 차지하는 소맥피의 가격이 kg당 42원으로 59% 상승하였으며, 탈지강 13% 상승, 어분이 14% 상승하는 등 대부분의 원료가격이 파격적으로 올랐다. 계산물(鷄產物)생산비 가운데서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합사료의 가격이 이와 같이 놀라운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계산물 가격자체가 그만큼 비싸질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그러면 계산물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 계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

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요인

계산물의 시장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계산물의 수급은 계산물 가격 이외에도 돼지고기나 쇠고기 또는 수산물의 가격으로 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소득 수준, 기호, 유통효율 증대 같은 요인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계산물 자체 가격수준의 절대치는 계산물 수급변동에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돼지고기나 쇠고기 또는 수산물 가격과의 상대적인 비(比:相對價格)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일 배합사료 가격의 상승이 모든 축산물 가격을 올리게 된다면 (올라가는 울이야 다르겠지만), 다른 요인이 변동하지 않은 상태 아래서 소비자는 구매력의 상실로 쇠고기나 우유 또는 돼지고기 소비를 줄이게 될지 모른다. 근당 소매가격을 보면 11월 중순 쇠고기가 3,200원, 돼지고기가 1,800원, 그리고 닭고기가 850원 정도 된다. 고기의 절대량에 큰 차이가 없다면 구매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소비자는 비싼 쇠고기 보다 돼지고기를, 혹은 돼지고기 보다 상대적으로 싼 닭고기를 더 사 먹

게 될 것이다. 경제불황 아래서 고급 양주나 맥주 대신 소주나 막걸리가 더 잘 팔리듯이 쇠고기나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가 더 잘 팔릴지 모른다. 그러기에 문제는 양계농가가 사료값 인상이라는 어두운 면만을 들여다 보지 않고 어떻게 생산을 효율화 시켜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생산비를 상대적으로 낮추고 유통효율을 증대 시켜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축산물 가격과의 차이를 크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당면 과제이다.

양계 산물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소비자의 소득 수준을 꼽을 수 있다. 계산물 가격이 아무리 오른다고 할지라도 소비자의 실질소득이 가격의 상승폭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한다면 계산물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소비자 소득의 매 1%증가마다 계란 소비는 1.03%가 증가하고, 닭고기 소비는 0.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불황 속에서 소비자 실질소득의 증가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최소한 81년 가을 농사가 풍년이 되고 국제 수출시장이 호조를 띠며 기름값이 적게 오르게 되는 경우어나 기대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서 관찰할 것은 소비자의 실질소득이 계속 떨어지면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고급품의 소비를 먼저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질인 농산물 소비를 덜 줄이거나 혹은 반대로 더 늘리거나 할 것이라는 점이다. 쌀 소비가 줄고 보리나 잡곡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쇠고기나 돼지고기 소비가 줄고 닭고기나 계란 소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최근 서울의 거리마다 「캐터키 후라이드 치킨」간판이 조그마한 식당문 앞에 새로이 걸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닭고기 소비가 경제불황을 맞아 더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보아진다. 만일 이것

이 사실이라면 양계 생산자들은 지금 경제불황 기간이 가장 좋은 소비촉진의 기회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고급제품 생산자들과 경기침체에 대한 푸념을 함께 나눌 것이 아니라 불만의 자리에서 걸어차고 일어나 소비촉진을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 양계산업의 장래와 자신들의 앞날을 위하여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믿는다.

소비자의 기호(嗜好)가 양계 산물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전통적인 식생활 습관과 기호변화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호문제를 등한시 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언제까지라도 기다린다는 자세로서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 국민들의 교육수준과 소득정도가 되면 닭고기 소비가 일반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중요한 매스 미디어 사회에서는 맛있는 요리개발만 되면 닭고기 소비를 대중화할 수 있는 길은 매우 쉽다고 본다. 사실 미국에서도 「캐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개발된 이후의 닭고기 소비란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는 닭이 한여름의 약제보다 튀김닭이나 통닭으로 소비되는 양이 급증하고 있다. 기호를 바꾸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양계협회나 계우회 같은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닭고기나 계란의 영양가 또는 각종의 요리개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광고나 선전을 하여 소비자 지식에 보탬을 주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 보아진다.

양계 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 가운데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계산물 특히 육계유통의 효율성 제고이다. 지난 4월 1일 취한 서울시 당국의 생계판매금지 이래 서울시의 육계 유통은 그 질서가 거의 다 무너져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 놓여 있다.

생계판매금지조치 파동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도계품(屠鷄品)이나 생계(生鷄)판매 모두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생계 구입이나 도계 소비를 모두 기피하고 있다. 모처럼 맛있는 육용계를 산다는 것이 맛없고 높은 산란계를 사게 되었다는 소비자의 불평으로부터 시작해서 믿고 살 수 있는 위생계가 없든지, 집주변의 정육점이나 구멍가게에서 손 쉽게 살 수 없다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태이다. 어디 이런 상태 아래서 한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소비자가 원하는 위생적인 닭 공급하나 제대로 못해내고 이윤획득에만 눈이 어두운 중간 상인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자못 심각하다. 결국 양계 생산자들이 연합하여 도계장을 세우고 판매활동까지 확장해 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보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대양계」지의 부탁으로 12월호에 기고한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부를 피하기 위하여 생략 하기로 한다.

가격변동과 수급전망

돼지고기와 계산물 가격 모두가 추정에 의하면 81년 말까지 계속해서 상승 할 것으로 예상 된다. 문제는 돼지고기와 양계 산물 가격 중 어느 것이 더 빠른 율로 상승 하느냐에 따라 양계 산물 수요는 달라 질 것이다. 양돈도 최근에는 대규모 전업양축가들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배합사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가격 인상에 의한 생산비 앙등 폭은 양돈이나 양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아 진다. 그러나 지난 79년 2월 이후 업계 불황의 폭이 양계보다는 양돈에 더 컸었고 심각했었기 때문에 돼지의 보유 수가 닭의 보유 수 보다 훨씬 더 멀

어 졌었다. 산란계는 지난 3월의 2,730 만수를 제외 하고는 9월까지 3,200만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작년 9월의 2,983만수 보다 더 늘어났다. 육용계는 성수기인 6월의 2,024만수를 제외 하고는 9월에 1,249 만수를 유지 함으로서 78년이나 79년의 9월 보유수보다 떨어지고 있지만 77년 9월의 수준과는 비슷하다. 돼지는 6월의 2백만두에서 12월에는 144만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양계보다 양돈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자체 수요에 더 부족된다고 한다면(두 수요의 증감을 일정하게 볼때), 양계 산물 가격의 상승율 보다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율이 더 빠를 것으로 기대 된다. 그렇다면 돼지고기 가격과 비교한 양계 산물의 상대가격이 더 낮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돼지고기 보다 양계산물의 수요가 더 증가할것임을 뜻한다.

최고기 생산은 배합사료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배합사료 가격 상승이 바로 최고기 생산비 인상으로 직결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쌀겨나 보리겨 등의 단미사료 가격 상승에 의한 영향은 받게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최고기 가격상승은 생산비 인상 때문에 생겼다가 보다는 소득향상에 영향을 받은 수요 증가로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지만 가까운 시일안에 우리 나라의 국민소득이 최고기 가격파동을 몰고 올 만큼 증가 할 것 같지가 않다. 따라서 최고기 상승요인을 찾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현재 수준보다 떨어 질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소비자의 구매력 사정 아래서는 최고기의 소매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양계 산물 가격이 높아져서 최고기로 대체하는 현상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최고기와 양계산물의 가격 차이로 볼 때 계산물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 하리라 본다.

양계산물 수요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수산

물의 저렴한 상대가격 수준이다. 다른 요인이 변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 아래서 수산물 가격의 배 1% 하락마다 계란의 소비가 0.8%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수산물과 양계산물 사이에 대체 관계가 크다는 것을 뜻하며 양계농민들도 수산물 가격수준을 항상 의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일러 주는 것이다. 경제의 성장 그늘속에 파묻혀 햇볕을 오랜동안 보지 못했던 산업의 하나가 바로 수산업이다. 수산물 가격은 과거 몇년동안 거의 오르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경제사정이 어려워 질 수록 소비자는 유류나 계란 또는 우유 소비 대신에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양계농민은 양돈이나 초식가축보다 수산물 소비에 더한 주의를 해야 하며 수산물과의 상대가격 차이를 좁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맺는말

세계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유통사료의 가격은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 된다. 사료가격의 상승은 싼든 좋은 축산물 가격의 상승을 수반하게 되며, 소비자의 소득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양계산물에 관한 한 쇠고기나 돼지고기 또는 우유에 비하여 수요에 있어서 반드시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양계인들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생산비를 내릴 수 있는데 까지 내려 나가는 것이다. 사료효율을 높이고 출하일령을 단축하며 폐사율을 줄이고 우량품을 생산해 내는 일들이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이 물아 닥칠 수록 생산자 스스로 굳게 뭉쳐 자구책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인색치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 자기 발로서는 사람만이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 주 부 화 장



바 브 콕

B-300V



하 바 드

사무실
전남 광주시 서구 양림동 8-15번지
전화 ⑧ 1107-2198